

## 14. 제주성(濟州城)의 요충(要衝) 화북진(禾北鎭)<sup>30)</sup>

- ◎ 16세기(世紀) 중엽 1천(千)여 왜적(倭賊) 화북포(禾北浦)로 상륙(上陸)
- ◎ 화북포(禾北浦) 공사 마친 김정(金) 목사(牧使) 이곳에서 숨겨

근세 조선시대에 있어서 화북진(禾北鎭)은 도내 9진(鎭) 가운데서도 첫 손을 꼽아야 할 만큼 중요한 요충(要衝)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화북의 위치가 섬의 수부(首府)인 제주성(濟州城) 바로 턱밑에 있고 유리한 지세와 포구를 지녀 제주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 왜변(倭變)에 특공대(特攻隊)로 맞서

화북에 아직 방호소(防護所)가 설치되기 이전이던 조선시대 초기 제주성은 큰 왜변(倭變)을 만나 하마터면 성을 점거 당할 뻔한 위기가 있

30) 『한라일보』 제78호 (1989. 07. 22).

었다.

왜구(倭寇)가 극성을 부리던 1555년(명종 10) 6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침범했던 왜적은 그 여세를 몰아 화북포(禾北浦) 앞바다에 쳐들어 왔다. 이때 침입한 왜선에 대하여는 기록에 따라 40여 척설과 60여 척설이 있고 왜병은 1천여 명의 큰 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방어시설이 없던 화북포로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했다. 상륙 즉시 그들은 제주성을 포위하고 3일 동안에 걸쳐 공방전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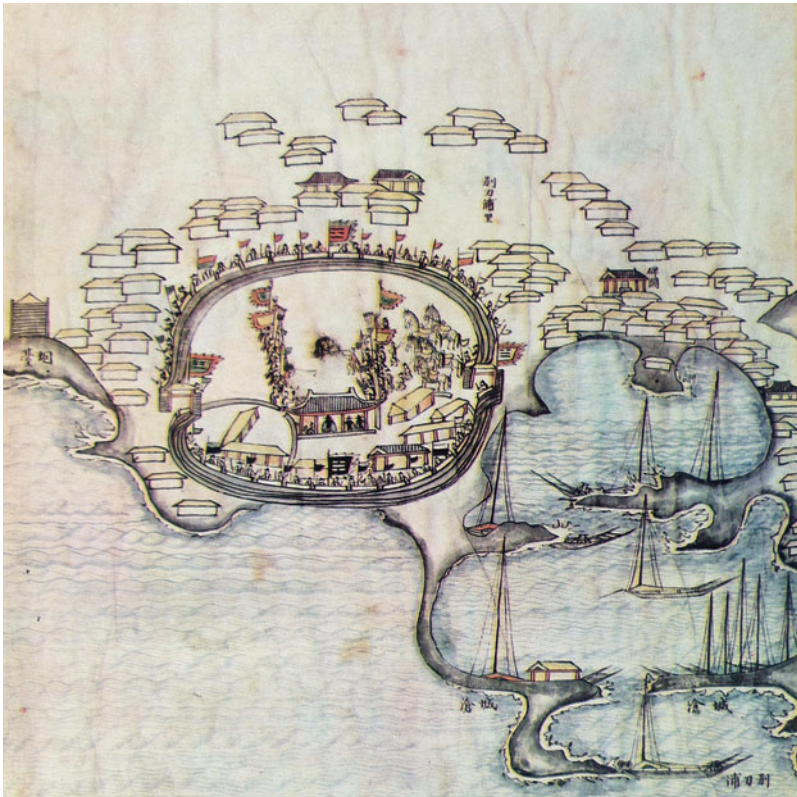
이때 목사는 김수문(金秀文)이었다. 그는 그보다 3년 전인 1552년에도 천미포(川尾浦)에 8척의 왜선이 내습하여 인명과 재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 터였다. 아군은 김직손(金直孫), 김성조(金成祖), 이희준(李希俊), 문시봉(文時鳳) 등을 중심으로 70인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왜적을 역습했다.

왜적은 평소 노략질과 전투로 훈련된 거칠고 날랜 무리들이었지만 이쪽이 워낙 강력하게 쳐들어갔으므로 대열이 무너지고 또 왜장(倭將)이 전사하면서 3일 만에 패퇴하였다. 이 싸움에서 아군은 왜적 3백여 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왜선 10여 척을 격침, 5척을 포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다행히 이 싸움은 목사 이하 군민이 단결하여 선전했기 때문에 대첩을 거두고 끝났지만 왜적을 바로 턱밑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시킨 것은 큰 허점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화북포에 방호소의 설치가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 최관(崔寬) 목사(牧使) 때 축성(築城)

화북포에 정식으로 진성(鎭城)을 축조하고 방호소를 설치한 것은 1678년(숙종 4) 목사 최관(崔寬) 때였다. 이때 기록을 보면 성의 둘레는 3백 3보, 높이는 11척이었다. 동서에 두 문이 있었고 성내에 군기고(軍器庫)와 객사(客舍)를 두었는데 객사는 환풍정(喚風亭)이라 했고 북성 위에는 누각을 세워 망양정(望洋亭)이라고 했다.



| 성(城)이 축조되고 방호소가 설치된 20여 년 뒤의 화북진(禾北鎭) | 이 그림은 1702년(숙종 28) 이형상(李衡祥) 목사 당시의 「화북성조(禾北城操)」 그림이다.



| 화북진성(제주시 화북동) | 1678년 최관 목사가 축조하여 방호소를 설치함.

방호소에는 조방장(助防將) 1인, 치총(雉摠) 2인, 서기(書記) 12인, 성정군(城丁軍) 79인, 차비군(差備軍) 10인, 방군(防軍) 1백 37인, 사후선(伺候船) 1척을 두도록 했다. 또 수전소(水戰所)도 아울러 설치되었는데 전선

(戰船) 3척, 대변량(待變糧) 6석, 격군(格軍) 1백 80인, 사포(射砲) 87인 등을 두게 하였다.

그러나 화북포를 조천관과 더불어 제주도의 2대 교통항으로 건설하는 데는 목사 김정(金倣)의 공로를 저버릴 수가 없다. 그가 제주목사로 도입한 것은 1735년(영조 11) 4월이었다. 이 무렵 화북포는 포구가 협소하고 선착장 방죽이 불완전하여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배가 침몰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그는 공사비용으로 번미(番米) 3백석을 내놓고 역군 연 1만 명을 동원하여 1737년 7월 드디어 공사에 착수했다. 그는 이 난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일반의 부역이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러는 반

면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와 돌을 지어 나르면서 공사를 지휘 독려했다. 그 바람에 간조(干潮) 때만 가능했던 공사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완공할 수가 있었다. 이때 쌓은 방조제는 길이가 1백 20보, 너비가 10여 보, 높이 6보였다.



| 목사 김정 봉공비 | 김정은 1737년 포구 축항공사를 시행하여 화북포가 제주의 관문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공을 세움. 삼천서당을 건립하는 등 제주에 큰 업적을 남긴 그는 목사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날 때 바로 이 화북포에서 숨을 거두었다.

### 많은 유배인(流配人)들 오가

이때 공사는 방조제로서 뿐 아니라 선착과 물양장으로도 쓸 수 있게 하였다.





! 화북 비석거리(제주시 화북동) | 현재 심연, 윤구동, 장인식 등 총 13기의 목사, 판관의 비석군이 서좌동향으로 소재하고 있다. 1976년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됨.

또 향내도 넓히고 준설작업까지 해놓았으므로 그 뒤로는 선박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이 공사를 마칠 무렵 임기도 끝나 육지로 떠나려고 그가 애써 이루어 놓은 화북포에 도착했다. 그러나 공사를 서둘면서 연일 무리했던 탓인지 갑자기 졸도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았다. 1737년 9월 3일의 일이었다.

그는 화북 축항공사 외에도 삼천서당(三泉書堂)과 연교정(延教亭)을 세우고 칠성단(七星壇), 삼사석(三射石) 등 많은 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일체 민폐를 끼치지 않는 목사로 도민의 추앙을 받았다. 지금 화북포구의 한 구석에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봉공비(奉公碑)가 외롭게 서있어 그날을 일깨워 준다.

劃然長嘯立城頭  
萬里滄溟潤不流  
北望長安何處是  
天涯從古逐臣愁

꺼릴 것 없이 성 머리에 서서 외쳐본다.  
만리에 넓고 잔잔한 바다는 아득하기만 하구나.  
북녘을 바라보지만 서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멀리 쫓겨난 신은 언제나 근심이 그칠까.

화북포 망양정(望洋亭)에서 노래한 그의 시다. 그의 저서 『노봉집(蘆峯集)』을 보면 제주를 노래한 많은 시가 실리고 있다. 그가 얼마나 제주를 아낀 인물인가를 엿보게 하는 문집이다.

김정이 공사를 마친 뒤로 화북포를 이용하는 선박의 빈도는 더욱 높아졌다. 수많은 유배인들이 이 포구를 거쳐 가면서 화북포는 한이 서린 포구가 되기도 했다. 더구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유배되어 이 포구로 들어오면서 전국에 널리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다.

화북을 별도(別刀)라고 부르기도 한다. 벼린내(別刀川)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아닌가 싶다. 이제 옛 마을 별도는 도시화에 밀려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도 별도 포구에 서면 갯내음과 함께 옛 정취가 새롭다.